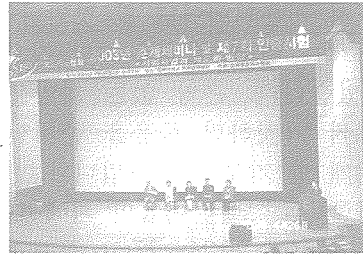


일반소식

궁금합니다

다음내용은 4월17일 춘계세미나에서“시범사업과 제도화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문하였던 내용을 각 적능별로 요약하여 실습니다



[질문] 가정호스피스 유형을 발표한 기관에 대한 질문

질문1) : 간호사가 환자를 일주일에 몇 번 방문하는지?

답 1) : 간호사가 주 1-2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임종과정이 관찰 되면 보다 더 자주 방문하여 통증이나 증상에 대한 조절계획을 세우며 지정의사는 필요한 처방을 하게 됩니다. 방문 간호사는 처방된 내용이 수행 되는지 살펴보고 팀 인력을 연결하게 됩니다.

질문2) : 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답 2) : 시범사업을 위한 질 관리 평가위원회에서 환자와가족의 삶의 만족도, 삶의 질, 가족부담들에 대한 도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하는 목회자 질문

질문1) : 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기 위하여 호스피스 면허증을 가진 의료인이 필요한데 언제쯤 어떤 제도로 호스피스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국공립 병원에 보적이 될 수 있을지?

답 1) : 앞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의료인을 보내서 교육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병원장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현재 전문 교육을 받은 분이 없다고 하여 전용병실을 만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지금이라도 의지만 있다면 병실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2) : 전용병실이 생겼을 때 환자들이 전용병실로 옮기는 것을 꺼려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 2) : 병원 안에서 치료적 패러 타임에서 케어의 패러 타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오해이므로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한다는 것이 환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오히려 호스피스 돌봄이 환자나 가족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장점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질문] 시설호스피스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의 질문

질문1) : 봉사를 통하여 호스피스 돌봄이 환자와 가족을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얼마나

큰 지지가 되는지 환자들이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닌가 하는 말을 많이 들었으며 이런 호스피스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 1) : 여기에 모인 많은 기관들이 똑같은 정신으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찰스 스웬스 목사의 말을 인용하면 "Don't sick more days in your life, but more life in your days" (내가 사는 날 동안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사는 날 동안에 더 많이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지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죽는 순간까지 더 잘 살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호스피스 기관이 있어 환자나 가족이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앙이나, 재정적인 상태에 맞춰서 호스피스 기관을 선택 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 2) : 위기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졌을 때 순수한 정신을 살릴 수 없을 때에 위기가 됩니다. 호스피스 원래의 철학에 맞도록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연결이 원활히 되고 환자와 가족은 필요에 따라 이동이 가능하여야 하며 어떤 환경의 호스피스 기관에서도 전인적인 돌봄이 제공되어 남아 있는 삶의 기간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인증시험에 대한 질문

질문1) : 인증시험 제도가 꼭 필요한지?

답 1) : 인증시험을 도입 하게 된 동기는 열심히 봉사하시는 봉사자들에게 교육차원에서 인증시험 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이 인증시험은 국가가 인정해 주지 않은 민간차원으로 한국호스피스협회 자체적으로 치르는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이 생명을 다루는 봉사이기 때문에 최소 몇 시간의 이론 교육과 실무를 거쳐야 하며 봉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복지사의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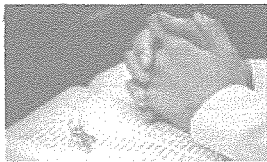
질문 1) : 시범사업의 논의가 되면서 나온 목표중의 하나가 의료비용 절감이라는 것이 너무 강조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비용부분이 효과가 없다고 하여 호스피스 사업이 필요 없는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 2) : 정부도 이 부분에 고민이 있을것입니다. 수가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호스피스 정신 보다는 수가 때문에 참여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것 같고 너무 적게 책정하면 실제로 호스피스 하는 기관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받을 것 같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NEWS 협회소식

2003년 지도자 세미나 개최

- 일 시 : 2003. 7. 11(금)~2003. 7. 12(토)
- 장 소 : 샘물호스피스
- 주 제 : 한국호스피스 발전을 위한 협회의 역할과 미래



NEWS 회원소식

무지개 호스피스

29기 무지개 호스피스 교육일정

- 일 시 : 2003. 9. 18.(목)~2003. 11. 20(목)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총 40시간)
- 장 소 : 정동재일감리교회 사회교육관 은병홀 (시청역 덕수궁)
- 대 상 : 호스피스에 관심있는 분 중 선착순 100명
- 교육비: 60,000원
- 문 의 : 02) 736-1928, 737-0210, 736-6288
(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
02) 736-0191, 736-0192
(무지개 호스피스 상담실)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주소변경

- E - mail: kakdang@kakdang.or.kr
- 홈페이지: www.kakdang.or.kr

세브란스 호스피스

봉사자 지지 모임

- 일 시 : 2003. 7 22(화) 오후 2시
- 장 소: 재활병원 강당

한호협 출판부

(2003. 6. 1 ~ 6. 30. / 단위: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전월이월금	7,963,669	우송료	13,300
총론 판매대금	736,800	금월이월금	8,701,073
우송료 환입	7,800		
수 입 이자	6,104		
합 계	8,714,373	합 계	8,714,373

(총론 재고 : 155부)